

기쁨의 의미연구

-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 정 일
(경북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러시아어와 한국어에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원적인 감정 중 하나인 “기쁨”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히 “기쁨”이라는 개념이 러시아와 한국어에서 어떻게 기술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술이 문화적 맥락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러시아어와 한국어에서 “기쁨”이 가지는 의미적, 화용적 특징들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기쁨은 러시아어에서 주로 радость [기쁨]과 удовольствие [즐거움(만족)] 으로 기술되며, 전자가 보다 넓은 종교적, 정신적, 지속적, 문화적 맥락과 후자는 보다 구체적, 육체적, 순간적 맥락과 관련된다. 전자가 보다 거시적 맥락에서 의미와 투영대상을 찾았다면 후자는 보다 일상적인 맥락에서 욕망이 구체적으로 투영될 대상을 찾았다는 것이 전통적인 설명방식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대립관계는 점차 약화되고, 기쁨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그 존재의 실존적 관계에 보다 집중하는지 아니면 일상의 디테일에서 즉각적으로 느끼는 기쁨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지의 대립으로 전환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한국어에서 기쁨은 주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두 개의 어휘로 구현되는

* 본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4038203).

데, 전자가 보다 정신적인 작용과 관련을 가지며, 그 유발하는 원인과 그 결과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추론이 기저에 깔려있는 반면, 후자는 화자가 참여자로서 해당 상황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연관된다. “기쁨”이 화자가 사전에 가졌던 기대와 계획, 예상과의 부합 혹은 충족으로 인한 흡족함에서 오는 것이라면 “즐거움”은 상황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화자에게서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다. 따라서 러시아어의 기쁨의 부차적인 개념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과 한국어의 “즐거움”은 매우 중요한 의미적 자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두 언어 모두 화자가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기쁨에 대한 2개의 변별적인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기쁨, 문화적 맥락, 참여, 태도, 감정

1. 서론

일찍이 철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사였던 감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성의 뒷전에 밀려 주변적이고 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감정은 흔히 충동과 동일시되어 왔으며 무엇인가 규명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비극과 슬픔이 인간을 정화시켜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여겨져 온 반면, 기쁨과 웃음의 감정은 악마와 결탁한 산물이라는 오랜 중세적 믿음이 지배해 온 서양의 문명사적 관점이나, 소리내어 웃거나 큰 소리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유교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기쁨에 대한 금기가 다른 감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감정에 대하여 붓물처럼 쏟아져 나온 일련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지닌다. 하나는 인간이 표현하는 수많은 감정들을 어떻게 분류될 수 있으며, 그러한 분류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한다면, 다른 하나는 그러한 과정에서 보다 근원적이고 본원적인 감정을,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보다 부차적인 감정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Ortony, Clore and Collins (1988, 12)는 두려움, 부러움, 분노, 자부심,

안도, 그리고 경탄과 같은 개별적인 감정들 사이의 체계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한 분석이,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구분하는 차원은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개별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규명보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의 종류를 나열하고 그것들을 분류하는데 중점을 두는 당대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이라는 미묘하고 복잡한 현상을 기술하기 위하여 Ortony가 제안한 이러한 입장표명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첫 번째 단계인 감정을 어떻게 분류하고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조차 연구자들의 견해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일찍이 데카르트는 인간의 감정을 크게 슬픔, 기쁨, 바람, 증오, 사랑, 경탄이라는 6개의 기본감정을 분류한 바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에서는 에크먼(2006. 30-33)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 포레족의 표정변화를 촬영하여, 얼굴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변별적 감정을 추출하고자 했다,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그는 기쁨, 분노, 불쾌함, 슬픔, 놀라움/두려움의 여섯 가지 기본감정을 상정하였다 포레족 사람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는 표정과 함께 두려운 표정을 같이 지었고, 두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두려운 표정과 함께 놀라는 표정을 같이 지었다. 흥미로운 점은 문명사회에서는 분명히 구분되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포레족에게서는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과, 후일 이들을 찍은 사진의 표정만을 보고도 문명권의 대학생들이 이들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맞추었다는 것이다. 에크먼의 이러한 실험은 감정이 보편적인 인간본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정 문화권에서 어떠한 감정이 학습과 세대 간의 전수를 통해 구현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감정의 구현이 어떻게 문화적인 연관성을 구성해 가는지 등을 포괄하는 일종의 문화적 총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준다. 플러칙은(2004, 120) Kemper의 연구¹⁾를 바탕으로 16명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된 인간의 기본감정들에 대한 분류를 시도한 뒤, 기쁨, 분노, 불쾌함, 슬픔, 놀라움, 두려움, 기대, 수용이라는 여덟 가지의 기본 감정을 상정한다. Kemper의 견해는 이들 연구자들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들 감정들을 분류하는지에 초

1) "How Many Emotions Are There?" Wedding the Social and the Autonomic Compone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 263-271, 2001

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가 제시하는 7개의 기준은 진화론적 관점, 신경적 관점, 정신분석적 관점, 자율신경계, 얼굴표정, 경험적 분류, 발달적 상황 등이다. 인간의 기본 감정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개괄하며 임지룡(2007, 8-9)은 한국인의 주요 감정을 화, 두려움, 미움, 사랑, 슬픔, 기쁨, 부끄러움, 긴장의 여덟 가지로 상정하였다. 이와 같이 기본 감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상정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가적 분류를 지양하고, 인간의 감정을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는데, Wierzbicka(1999, 50-122)처럼 이른바 인지적 시나리오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메타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의 분류는 비록 긍정이나 부정이나라는 양가적 대립을 근간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과 “바람” “기대” “가능성”등의 추가적인 개념을 이용하여 좀 더 세밀한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영어를 대상으로 하는 그의 시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Wierzbicka의 인지적 시나리오에 따른 감정의 분류(1999, 50-122)

인지적 시나리오	관련 개념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김	joy, happy(happiness), contented, pleased(pleasure), delighted(delight), relieved (relief)
무엇인가 나쁜 일이 생김 (과거 및 현재와 연관)	sadness, unhappiness, distress, sorrow, grief, despair, disappointment, frustration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음	fear, afraid, fright, terrified, petrified, horrified, alarmed, panic, dread, anxiety, nervous, worry, apprehension
이런 일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음	anger, indignation, fury, outrage, rage, shocked, appalled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기	envy, jealousy, pity, self-pity, compassion, Schadenfreude, gratitude, admiration, contempt
우리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shame, embarrassment, pride, remorse, guilt

결국 이러한 주장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인간의 기본감정이, 인간의 세계인식 및, 인간이 구축해 온 문화적 틀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²⁾ 본 연구에서, 필자의 관심사는 인간의 기본감정에 대한 기존의 여러 분류들 중에서 일관되게 등장하는 “기쁨”이라는 감정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러시아어와 한국어라는 문화적 맥락 하에서 어떻게 언어적으로 발생하고, 그 사용 영역을 확장하고 변화시켜 왔는지, 그리고 확장과 변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다양한 문화적 맥락과 결합되어왔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두 언어에서 등장하는 기쁨 개념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기술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두 언어에서 투영된 문화적 특징들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러시아어 예문들은 러시아어 국립말뭉치(Национально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이하 ruscorpora)에서 주로 인용하였고,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것은 www.yandex.ru에서 검색을 통해 추출한 것들이다. 한국어 예문의 경우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 나눔터의 말뭉치에 등장하는 문장을 주로 사용하였고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 나눔터 말뭉치의 문장을 토대로 필자가 약간의 가공을 한 것임을 밝힌다.

II. 본론

1. 기쁨표현과 등장빈도

“기쁨”이라는 감정의 표현이 적극적으로 학문적 연구대상이 된 역사는 길지 않으며 그 시초를 Karl Reuning의 논문으로 보는 Степанов(1997, 304)의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³⁾ Karl Reuning의 연구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다른

-
- 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플러치(2004, 132-137)을 보라. 그는 다차원 비교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 솔로몬군도와 일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자바어의 감정구조가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 3) 그는 Karl Reuning의 논문 “Joy and Freu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Linguistic Field of Pleasurable Emotions in English and German”(1941)을 “기쁨(радость)”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을 시도한 거의 유일한 연구라고 지적하면서, 이 논문에서 “기쁨이라는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상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대립관계를 소개하고 있다. 그 다섯 가지의 대립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심층적인 것과 표층적인 것 (2) 강렬한

감정과 구분되어 가지는 질적, 양적 특징들에 대한 규명과 함께 기쁨이라는 감정을 분석하는데 긴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다섯 가지 기준(심층성, 강도, 역동성, 시간과의 연계성, 대상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들에 대한 일종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인지언어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감정표현들이 가지는 보편성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기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학문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언어권에서 부정적인 감정표현의 어휘가 긍정적인 감정표현의 어휘보다 더 자주 등장하고, 널리 사용된다는 추정⁴⁾은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도 이러한 생각은 널리 퍼져 있는 듯하다.⁵⁾

하지만 필자가 실제의 언어현실, 특히 최근 활발히 구축되고 있는 말뭉치들

것과 강도가 약한 것 (3) 역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 (4) 과거와 연관성을 지니는 것 - 미래와 연관성을 지니는 것 (5) 대상적인 것과 비대상적인 것. 이러한 대립관계는 사실 기쁨이라는 개념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의미적 단초를 제공해주며, 이후의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본다.

- 4) Wierzbicka(1999, 50-60)는 영어의 예를 들면서, 영어에는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사건’을 지칭하는 어휘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무엇인가 나쁜일이 일어났음을 표현하는 감정표현 어휘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러시아어와 영어의 감정표현 클러스터를 광범위하게 분석한 Апресян(2011, 36)도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된 어휘클러스터의 양이 긍정적인 감정과 연관된 어휘클러스터의 양을 압도한다고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어휘클러스터의 예로 гнев, грусть, отвращение, стыд, жалость, зависть, ревность, обида를, 긍정적인 어휘 클러스터의 예로 радость, гордость, благодарно сть, восхищение를 들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무엇인가 부정적이고 나쁜 것, 규범에서 이탈된 것이, 좋은 것, 규범이나 기대에 상응하는 것에 비해 의식 속에 자리잡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적인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 또는 행동상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좋은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나 행동상의 반응에 비해 더욱 요구되기 때문인 것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 5) 이와 관하여 최현석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보라.
 행복했던 경험보다는 분노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적는 것이 사실이다...(중략) 하지만 무선호출기를 통해 수시로 연락하면서 현재의 감정상태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보면, 편안하거나 행복하다는 답변이 훨씬 많다. (중략)...이처럼 실제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는 감정과 기억하는 감정은 많이 다릅니다.(최현석, 163-164)

을 조사해 본 결과, 기존의 통념과 다소 다른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말뭉치 검색결과만을 놓고 볼 때에는 기쁨을 표현하는 어휘의 등장 빈도가 여타의 감정표현 어휘보다 결코 낮다고는 할 수 없었다. 100만 마디의 한국어 균형 말뭉치를 대상으로 등장빈도수를 조사한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빈도사전(2014)에 따르면 형용사 “기쁘다”와, 명사 “기쁨”의 등장빈도를 더할 경우 이들은 다른 주요 감정표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등장 빈도를 보여준다.⁶⁾ 또한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의 말뭉치를 현대문어에 적용하여 검색을 해 본 결과, 기쁨”과 “기쁘다”의 등장횟수를 더할 경우 감정표현 어휘 중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등장빈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⁷⁾ 비록 말뭉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여겨지는 현대문어로 검색범위를 한정하기는 하였으나, 기쁨”의 등장빈도가 다른 감정표현 어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표현의 등장빈도가 부정적인 감정표현의 빈도에 비해 적어도 대등하거나, 높을 수 있다는 앞서의 언급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된 어휘의 등장빈도가 긍정적인 감정과 연관된 어휘의 빈도가 높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어의 경우에서도 유사하여 러시아어 국립 말뭉치(ruscorpora)⁸⁾에 따르면 기쁨(радость 14,340회), 기쁨(радостный 1382회),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 9218 회), 즐거움(충족)(удовлетворение

-
- 6) 형용사 기쁘다는 등장빈도가 0.0072%, 명사 기쁨의 등장빈도는 0.0069%이다. 반면에 형용사 슬프다는 0.0061%, 명사 슬픔은 0.0032, 형용사 무섭다는 0.0105%, 명사 공포는 0.0024(무서움은 0.0008%)로 기쁘다/기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다. 명사 분노의 등장빈도가 0.0026%, 화의 빈도가 0.0130%(불행의 의미인 “화”와 요일을 의미하는 “화”를 제외할 경우, 화나다의 등장빈도는 0.0010%이다. 그 외에 괴롭다는 0.0020%, 무섭다는 0.0108%
- 7) 기쁘다(237회), 슬프다(153회), 기쁨 (2482회), 슬픔(2307회), 즐거움(1511), 괴로움(616), 괴롭다(100), 기분좋다(88), 무서움(200회), 무섭다(318회), 공포(663회), 화(931회), 분노(664회), 즐겁다(149), 무섭다(318)의 빈도로 등장하였다.
- 8) 최초의 검색은 2015년 11월 10일에 이루어졌으며, 몇몇 어휘들에 대한 검색은 논문 수정기간인 12월 15일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다.

2563회) 즐거운(весёлый 6046) 등이 슬픔(печаль 2259회)나 슬픈(печальный 1754회), 슬픈(грустный 1229), 공포(страх 13,861), 공포스러운(страшный 6221), 비애(горе 13,108회)등 여타의 감정어휘보다 자주 등장하거나, 적어도 현저하게 적은 빈도로 등장한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물론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통계가 언어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예컨대 동일한 감정에 대해 다양한 동의어와 유사어, 대체적 표현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들의 발생빈도를 모두 포괄할 경우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한국어의 코퍼스과 러시아어 국립 말뭉치(ruscorpora) 모두 문어중심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점과, 감정표현이 구어에서 보다 풍부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을 고려해 보자면, 이러한 통계적 결과가 실제 언어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러시아어에서 기쁨은 충분히 자주 사용되고 표현되는 감정이라 하는 데는 큰 문리가 없을 것이다.

2. 기쁨의 기술에 대하여

러시아의 가장 규범적인 사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БАС (1961)사전에서 기쁨(радость)은 “큰 즐거움(만족) (удовольствие)과, 즐거움(충족)(удовлетворение)의 기분”으로 정의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러시아어에서 기쁨은 즐거움(만족) 및 즐거움(충족)과 양적인 차이를 가진 감정으로 이해된다. МАС(1983, 581)사전에서도 “기쁨”(радость)은 “즐거움(만족) (удовольствие)과, 즐거움(충족)(удовлетворение)의 기분”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Ожегов(1985) 사전에서도 “기쁨(радость)”은 “즐거움(충족)(удовлетворение)으로 인한 즐거운 감정이나 느낌”으로, “즐거움(충족)(удовлетворение)”은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의 느낌”으로,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은 “유쾌한 생각이나 경험으로부터 오는 기쁨(радость)의 느낌”으로 규정되고 있다. БТС(1998)에서도 “기쁨(радость)”은 “만족과 큰 정신적 충족의 느낌”으로, 즐거움(충족)(удовлетворение)은 “누군가의 의도가 바람, 요구가 충족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만족의 느낌”으로, “즐거

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은 “유쾌한 느낌이나 경험으로 오는 즐거움(만족)이나 기쁨의 느낌”으로 규정된다. “기쁨”이 “즐거움(만족)”과 “충족”의 개념을 이용하여, “즐거움(만족)”이 “기쁨”과 “충족”의 개념을 이용하여, 다시 “충족”이 “기쁨”과 “만족”의 개념을 이용하여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이러한 순환적 상황은 러시아어의 여러 사전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물론 러시아어에서 기쁨의 감정이 이들 세 개의 어휘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외에도 이기움(근간)은 한국어의 “희열”(восхищение이나 экзальтация), “광희”(ликование), “환희”(восторг 나 отрада), “즐거움”(веселье), “즐거움(향유)”(наслаждение), “즐거움(위락)”(усллада), “즐거움(위안)”(утеха), “황홀”(экстаз)등의 어휘들이 광범위하게 러시아어에서 기쁨의 클러스터에 포함될만한 어휘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본 논문에서 기쁨의 어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쁨(радость)”과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을 집중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이들 두 어휘가 등장빈도수에 있어서 현저하게 여타의 어휘들을 압도한다는 사실이외에도, 모국어 화자들에게 이들의 차이가 어휘 의미상 차이라기보다는 그 용법상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는 기능적인 차이로 느껴지기 때문이다⁹⁾

9) 실제 러시아에서 “기쁨” 감정의 기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기쁨(радость)”과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간의 변별성을 규명하는데 집중되어있다. (가) “즐거움(충족)”(удовлетворение)의 경우,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고, (나) 그 조건을 실현하는 수단이 명시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쁨(радость)”과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과는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즐거움(충족)(удовлетворение)”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를 보라.

(1) Канцлер Германи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ыразил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развитием российско-германских связей, отметив очень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экономиче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Германией. (ruscorpora)

독일 수상은, 이번에는 자기가, 러시아와 독일 사이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 문화 정치적 관계에 주목하면서, 러시아-독일간의 관계증진에 대한 충족감(만족)을 표했다.

위의 예문 (1) 에서 러시아-독일간의 관계증진이 충족되었으며, 그러한 관계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제, 문화, 정치적 관계가 명시되고 있다. 아래의 예문 (2) 에서도

이러한 순환적 상황은 한국어의“기쁨”/“기쁘다”의 경우에서도 공동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국어대사전(2004)에서는 “기쁘다”는 “마음에 즐거운 느낌이 나다”로, “기쁨”은 “마음이 즐거움. 기쁜 마음이나 느낌”으로 설명되는데, “즐겁다”는 “마음이나 관능이 만족스럽고 윤택하다.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다”로 설명되고 있다. 기본적인 감정적인 표현들이 서로를 규정하는 이러한 상황은 여러 언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는 “감정은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테제가 감정을 다루는 주요 연구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Wierzbicka(1972, 57-60)은 “그 의미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감정의 의미를 특징짓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전제하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은 그 개념보다 의미적으로 보다 단순한 개념들을 연결하여 풀어내는 것이라 규정한다. 그의 설명을 따르자면 가장 기본적인 감정들은 그보다 더 의미적으로 단순한 개념들을 찾을 수 없으므로, 서로가 서로를 규정해주는 끊임없는 순환논리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는 기본적인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속에 비교를 담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즉 직접적으로 그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느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로 근접한 상황을 상정하고 그 때 느꼈던 것과 유사한 감정을 느낀다고 기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기억이나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그 감정과

맥도날드를 방문한 방문객의 기대가 충족되었으며, 그 수단으로서는 세심한 광고 전략이 채택되었다.

- (2) Главная цель McDonald's в России —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посетителей. Поэтому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н вплотную занялся рекламными кампаниями. Август 1999-го: "Собери три этикетки жевательной резинки Dirol и получи бесплатно гамбургер". Сентябрь 1999-го: "При покупке обеда с Биг Маком вы получаете стандартную порцию кофе Nescafe. (ruscorpora)

맥도날드의 주요 목표는 방문객들을 충족(만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맥도날드는 세심하게 광고에 관심을 기울였다. 1999년 8월에는 “디롤 껌 상표 3개 모으셔서 무료로 햄버거를 받으세요”. “1999년 9월에는 빅 맥 런치를 사시면, 네스카페 커피 스탠다드를 받게 됩니다”

연관될 수 있는 외적 환경이나 상황, 생각등을 기술하고, 우리의 독자나 청자가 그 특정한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틀안에서는 “--하는 --처럼 느끼다(feel like)”가 필수적인 논향으로 들어가게 되며, 이로써 그가 제시하는 메타적 해석의 틀이 완성된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예를 두 개 들어보자.

(1) 즐겁다(joyful)

X가 즐겁다고 느낀다 = 어떤 사람이, 그가 바라던 것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느끼는 것처럼 X가 느낀다

(2) 슬프다(sad)

X가 슬프다고 느낀다 = 어떤 사람이 그가 일어나길 바랐던 것이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느끼는 것처럼 X가 느낀다.¹⁰⁾

Wierzbicka의 이러한 견해는 콰벡세스(2009, 33)가 지적하고 있듯이, 특정 언어의 특정한 감정어휘들의 개념적 내용을 구성하는 의미적 본원소는 보

10) Wierzbicka(1999, 12-13)는 이후의 연구에서 비교를 통한 감정의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러시아의 작가로 톨스토이를 들면서 그의 작품 안나 카레니나에서 든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예문을 제시한다.

[At the station, Vronsky, who is in love with Anna, catches sight of Anna's husband]

Vronsky....had such a disagreeable sensation **as a man tortured by thirst might feel** on reaching a spring and finding a dog, sheep, or pig in it, drinking the water and making it muddy.

He [Anna's husband] now felt like a man who on coming home finds his house locked against him. “But perhaps the key can still be found”, thought Karenina.

[Anna has finally left her husband]

He **felt like a man who** just had a tooth drawn which has been hurting him a long time.

편적성격을 지닌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그렇게 보편적 요소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 개념의 본질적인 핵심의미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이 가능한 유사한(혹은 동일한) 장면이나 시나리오를 기술하는 절을 사용하게 되고, 이때 수많은 의미적 보편소들이 부수적인 절로 결합하여 장면과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통사론이 중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리 이러한 상황이 충족되었으므로, 우리는 이리이러하게 느낀다는 것이 도식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Wierzbicka의 보편적인 의미원소 중심의 기술은 수많은 감정들 사이의 기술적 차이를 훌륭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별 감정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은 정작 모호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감정의 표현과 감정의 기술을 구분하고자 한다. 특히 이 문제는 “기쁨”/“기쁘다”의 사용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데, “기쁨”이 기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감탄문이나 “기쁨”과 유사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기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많은 방식들이 있고 이러한 다양한 표현방식들은 한국어의 “기쁨”/“기쁘다”의 다양한 하위범주를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김향숙(2001, 40-42)은 한국어에서 “기쁨”의 하위범주를 즐거움, 신명남, 만족감, 감동, 편안함, 자신감, 기대감의 여덟 가지로 들고 있고, 조남호(2003)은 “기쁘다”가 만족스럽다, 흐뭇하다, 유쾌하다, 신명나다, 설레다, 흥미롭다, 도취되다, 좋다, 흡족하다, 재미있다, 상쾌하다, 신바람나다, 흥분하다, 흥미진진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우습다, 신나다, 들뜨다, 흥겹다, 황홀하다 등의 21개의 동일영역 어휘를 가진다고 본다.¹¹⁾ 이러한 다양

11) <기쁨> <기쁘다>가 이렇게 다양한 하위범주와 결합되는 것은 그 어원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김민수의 우리말 어원사전에 따르면(1997, 65) “기쁨”은 그 연원을 석보상절(1447, 13:7)에서 처음 등장한 ‘깃쁘다’의 형태이다. 이 형태는 ㅂ + ㅄ [접사] + ㅌ [어미] 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세어 ㅂ [ㅂ] (기뻐하다)’는 현대어의 ‘기뻐하다’에 해당하는 동사로서 여기에 형용사화 접미사 ‘-쁘’가 접속하여 형용사로 파생된 것이다. 서정범의 한국어 어원사전(2003:100)에 따르면 기쁘다는 동사 ㅂ [ㅂ] (기뻐하다)로 전성된 것인데 이때 ㅂ [ㅂ]의 어근은 ‘ㅂ’이 된다. 기뻐 ㅂ [ㅂ] (기뻐하다)는 鼓 (북 고 鼓자에서 ㅂ [ㅂ] 부분은 북을 나타내며, ㅂ는 손에 북채를 잡은 모습이다)자 아래에 ㅂ [ㅂ] 자를 밑받친 것이다. 북치고(鼓), 노래하니 즐겁고 기쁘다는 뜻이다. 또한 동시에 ㅂ [ㅂ], 가라사대(曰), 가르치다(教), 고래고래(高聲)에서 각각의 어근 ‘ㅂ, 갈, 곧’ 등이 모두 말의 뜻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ㅂ 역시 말의 뜻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한 하위범주에 속하는 개념들은 다양한 언어적 장치들과 결합되어, “기쁨”이라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쁨”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하위개념들이 어떻게 기쁨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게 되느냐는 필자의 논의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본 논문의 일차적 관심대상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기쁨”/“기쁘다”는 감정어휘가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체제 내에서 어떻게 기술되고, 실제 언어 문화적 맥락에서 사용되는가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체제 내에서 “기쁨”이라는 감정이 어떠한 어휘로 기술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어휘들은 어떠한 문화적 맥락을 각각의 언어 체제내에서 구축해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기쁨의 의미구조

3.1. 러시아어 기쁨(радость)과 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

Фасмер(1987:429)는 “기쁨(радость)”에 대해 ‘기쁨, 기꺼이 —하는’의 의미를 가지는 원시 인도유럽어의 **arda*-를 어원으로 설정하는 반면에, Степанов(1997, 304-308)는 **radh*-을 어원으로 설정한다. 그는 이 어원이 “호의의 증거, 선행, 사랑의 재능, 통이 크다는 것, 무엇인가에 대한 추구”등의 의미와 관련되며, “선행을 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의미하는 형용사 рад에서 파생하였다고 주장한다.¹²⁾ 그리고 선행을 한다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지극히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радость)”는 그에 따르면 “내가 주위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의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내적인 편안함, 존재의 만족감의 느낌”을 의미하게 된다.

“주위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상태”라는 연원을 가진 “기쁨(радость)”은 자연스럽게 러시아 문화의 초기부터 러시아의 토속신앙 및 이후의 기독교 신앙과 보다 용이하게 결합될 높은 가능성을 가지면서 점차 러시아 문화의 토양 속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발생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의 존재¹³⁾(Колесов 2007, 345)는 이러한 신앙적 맥락, 그리고 그러한 신앙에

12) 어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Красавский(2008, 111-112)를 참조하라

기반한 문화적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도무지 왜 기쁨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 (3)-(5)를 보라.

(3) А весной выходишь в мир — солнце, зелень, тепло.

И почему-то заливает беспричинная радость.

(ruscorpora)

봄이면 너는 세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거야. - 태양과 푸르름, 따뜻함
웬일인지 영문을 알수 없는 기쁨이 몰려들게 되지

(4) В этот вечер случилась неожиданная радость: приехал его стар
ый друг Федор Емельянов. (ruscorpora)

그날 저녁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기쁨일)이 생겼다. 그의 옛친구인 표
도르 에펠라노프가 온 것이다.

(5) И тогда ком не пришло счастье, и непонятная радость, и волнен
ие — я не знаю откуда и почему.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행복이 찾아왔고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이, 그
리고 흥분이 찾아왔다. 나는 그것들이 어디로부터, 무슨 이유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어원에 근거한 이러한 설명은 자연스럽게 도덕적, 미학적 개념과 결합되어, 러시아의 여러 문화개념들에게서 광범위하게 등장하는 낭만적인 이원 대립 즉 <고상함>과 <저열함>, <천상>과 <지상>,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대립을 연상시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방식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радость)이 이른바 인간의 이성적 원칙으로 성취하고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고 수여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중세적 원칙이 약화되고 있는 현대에는 앞서 언급한 낭만적 이원론 보다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따라서 예상하고 성취하고 달성하는 기쁨과, 인간의

13) 한국어의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기쁨을 사용할 수 없다. 한국어에서 기쁨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기대하지 않은 기쁨,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영문을 알 수 없는 기쁨은 존재하기 힘들다.

이성으로 설명이 힘든 수여되고 부여되는 기쁨이라는 이분법이 보다 크게 대두된다.

자신의 해석체계내에서 중세적 이원관을 견지하고 있는 Пеньковский (1991, 149-151)는 “기쁨(радость)”을 감정으로,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을 “긍정적인 감정-생리적 반응”에 불과한 것으로 구분하면서 “기쁨(радость)”을 보다 고상한, 영적인 세계와 연결하고, “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을 보다 낮은 육적인 세계와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을 추구하고, 찾아내고, 추출해내고, 남에게서 얻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기술을 보유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¹⁴⁾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난 시대의 다분히 낭만적인 이원론을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힘든 현대에는 과거에 견지되었던 수직적 대립이, 동일 선상의 수평적 대립으로 대치되고 있다. 즉 보다 일관되고 전반적인 삶의 태도와 원칙의 문제인지, 아니면 즉각적인 일상의 디테일과, 그것을 대하는 관점의 문제인지가 보다 전면으로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자

14) 이와 관련하여 Пеньковский (2004, 153)는 우리에게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행위, 혹은 그 행위의 결과물, 그리고 인공물만 가능하며 자연물이나 특정한 인물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왜냐하면 자연이나, 신의 피조물인 인간은 우리에게 기쁨(радость)의 대상이 될 지언정, 기쁨(만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예컨대 그는 Эти ромашки доставил мне удовольствие. “이 캐모마일이 나에게 즐거움(만족)을 주었다”는 문장에서 캐모마일은 들에 활짝핀 캐모마일이 아닌 꽃다발로 꾸며진 캐모마일이어야 하고, Маша доставляла мне удовольствие. “마샤는 나에게 즐거움(만족)을 주었다”라는 문장에서 마샤는 고유한 개인이 아닌, 마샤와 관련된 특정한 사건으로 지칭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꽃다발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즐거움을 줄 수 없는 것인가? 라는 반론, 그리고 마샤와 마샤의 행동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것이 아닌가? 라는 반론을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며, 무리한 해석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상황에서 즉각적인 즐거움(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꽃밭일 가능성보다는 꽃다발일 확률이 높고, 특정한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에 초점을 맞출 경우 나에게 기쁨(радост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가 한 특정한 행동은 나에게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의 대상이 된다.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짧은 시간적 지속구간을 지닐수록 인간의 즉각적인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경향의 문제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듯 하다.

들이 그 경계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넘나들며 이들 두 단어들의 사용영역을 자신의 발화목적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Пеньковский가 가능하지 않다고 규정한 많은 조합들이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와 매체에 서 등장하고, 이러한 예들은 별다른 무리없이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 (6)-(7)에서 보듯이 즐거움(만)(удовольствие)이 사용된 이유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6)의 예문의 경우는 쟁점은 일상에 대한 화자의 관점이고, (7)의 경우는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화자의 이성적 추론으로부터 얻어진 기쁨이기 때문에 удовольствие가 보다 적절한 것이다.

- (6) Кроме того, людям надоедает выполнять одни и те же действия снова и снова, они перестают получать удовольствие от своей работы.

게다가 사람들은 똑같은 행위를 다시 계속 수행하는 것에 지겨워한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일로부터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 (7) Но я посмотрел на свой "Форд" и неожиданно испытал удовольствие от мысли, что могу снова прокатиться на нём до Москвы и обратно.

하지만 나는 내 포드자동차를 바라보았고 갑자기 내가 다시 차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되자, 예상치 못한 계도 만족을 경험했다.

따라서 추운 겨울, 걸음을 재촉해 공연을 보러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찬사를 보내는 (8) 의 예문에서 “기쁨(радость)”이 사용된 것은, 이것이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느낌이나 감정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삶의 태도와 경향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 (8) Человеку свойственно искать радость, это — неназванный би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нкт выживания. И те, кто подчинялся ему, находили в темные морозные вечера дорогу к этому ежедневному подвигу

인간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적이다. 이것은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생물학적 생존본능이다. 그리고 그것을 따른 사람들은 공공 얼어붙은 저녁에도 이렇게 매일 매일 펼쳐지는 위업에 이르는 길을 찾곤 했다.

Пеньковский의 체계 안에서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가지는 느낌과 감정이므로, 이는 매우 물질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사물이나 매커니즘처럼 망가질 수(портиться) 있는 반면에 기쁨(радость)는 마치 생명체처럼 그것에 생명을 부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생명이 다할 수도 있다. 때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한다. 그렇게 생명체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기쁨(радость)”을 가슴에 품을 수도 있고, 영혼 속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갯수와 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충분한 수와 양이 모이게 되면 그것들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오랜기간의 지속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은 상응하는 감정-생리적 반응의 매커니즘에 넣은 뒤 반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조건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시스템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은 생명체와 같은 일생을 거치지 않는다. 매순간 우리 눈앞에서는 새로울 수 있는 것이다. 생명체와 같은 일생, 탄생과 죽음을 가진다는 것은 생명을 전제하기 때문인데,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것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 수 없다. 단지 우리 앞에서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그 상황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나의 작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따라서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과는 시작을 지칭하는 동사들과, 혹은 종료를 지칭하는 동사들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시작과 끝이 없이 그저 상황에서 잠시 발생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어서 지속이 되지 않고, 따라서 어떤 의미있는 집적이나 축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남을 위한 “기쁨(радость)”이 있을 수 있지만, 남을 위한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Пеньковский적 접근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아래

의 예들이 보여주듯 “기쁨(радость)”이 개개인이 개별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것이 아닌 공식화, 규격화된 기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마치 기계처럼 망가질 수도 있으며, “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도 그것이 소중하게 보존된다면 “기쁨(радость)”처럼 가슴속 깊은 곳에 머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Пеньковский의 접근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결합의 상황이다.

최근 광고문구등에서 특정 제품이 새로운 “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을 발생시키고, 이전의 “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을 새롭게 재탄생시킨다는 전례없는 표현들이 새로운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고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구입하는 순간 “새로운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이 탄생한다는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법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즐거움(만족)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으며, 이전의 즐거움(만족)은 그 생명이다 했다는 것이다. 시작과 끝이 없는 과정으로서의, 순간으로서의 즐거움(만족)만을 상징한 Пеньковский를 통해서는 설명이 쉽지 않은 예들이다. 이러한 영역의 혼용 및 확장은 예 (9)-(10)의 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쁨(радость)은 (9)에서 보듯 “꿈의 실현”으로부터 오기도 하며, 심지어 자신의 행동으로 망쳐질 수 있는 것이며, (10)에서 보듯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을 가슴에 담아둘 수 있고 (11)에서 보듯 쌓아둘 수도 있게 된다. 이 역시 Пеньковский류의 전통적 방식으로는 설명이 쉽지 않은 새로운 규범의 등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9) 4 «закона», которые портят нам **радость** от осуществившейся

мечты

꿈을 이름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을 망치는 4가지 법칙

(10) Раньше Илья не думал о том, насколько серьёзно любит его эта женщина, а теперь ему казалось, что она любила сильно, крепко, и, читая её письмо, он чувствовал **горд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в сердце.**

이전에 일리야는 이 여성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가 매우 강하게 (자신을) 사

랑하고 있는 듯 했다. 그래서 그녀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는 가슴속에서 뿌듯한 즐거움(만족)을 느꼈다.

(11) «Чтобы "запасти удовольствие", нет нужды в переедании любимого продукта.

Если м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хотим "запасти удовольствие", а не жир, то мы должны 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ся на вкусе так, как будто хотим его запомнить».

“만족”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이든 과식할 필요가 없다. 만일 우리가 실제로 “만족을 쌓아두고 싶다면”, 지방이 아닌, 음식의 맛에 주목해야 한다. 마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3.2. 러시아어와 우리말에서 기쁨의 의미구조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말의 ‘기쁘다’는 ‘마음에 즐거운 느낌이 있다’, ‘기쁨’은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으로, ‘즐겁다’는 ‘마음이 만족스럽고 유쾌하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¹⁵⁾ 러시아어와 유사하게 우리말의 ‘기쁨/기쁘다’도 ‘즐거움/즐겁다’라는 감정을 매개로 정의되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이 둘은 우리말에서 미세하게 구분되는데, ‘기쁨/기쁘다’는 어떤 활동과 관련하여 감각적으로 느낌이 좋은 것을 뜻하는 말로서 판단보다는 경험적 측면이 강조되는 반면에, ‘즐거움/즐겁다’는 감각보다는 정신적인 면과 관계가 깊다.¹⁶⁾ 중앙일보 어문연구소가 펴낸 ‘한국어가 있다 2’(2005:93)의 기술에 따르면 만국기가 펠럭이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가을 운동회, 단풍과 푸른 하늘이 고운 가을소풍, 생소한 풍경, 낯선 사람과 만나는 설렘이 가득한 주말 여행,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점심식사를 할 때 등등은 ‘기쁘다’보다는 ‘즐겁다’라는 말이 어울리고 이들은 보다 감각과 관련이 있는 반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의 심정, 자식이 대학 입시에 합격했을 때, 이산 가족이 수십년 만에 만났을 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즐겁다’보다는 ‘기쁘다’가 어울리며, 이들은 감각적이라기 보다는 정신적이다.

15) 민중앤티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2006

16) 한국어가 있다 2. 중앙일보 어문 연구소. 2005

이와 유사하게 임지룡(2007, 234)은 일반적인 사전적인 정리와는 달리 ‘기쁨’이 두 가지 방식의 일상적 체험을 통해 개념화된다고 밝힌 뒤, 기쁨은 신체의 생리적 반응에 의해 파악되며(ex. 기쁨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다), 음식물처럼 구체적인 대상으로써 추상적인 ‘기쁨’을 파악하게(ex. 기쁨을 맛보다) 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쁨’은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과 쾌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체적인 반응과 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자면 한국어에서 기쁘다는 한국어의 기쁘다는 (일정기간의 사고작용을 기반에 둔) 보다 정신적인 작용의 산물이거나, 비록 감각적인 출처를 가지더라도 그것이 화자가 이전에 가졌던 기대와 예상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즐겁다”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화자가 외부의 상황이나 사건, 대상에 대한 보다 즉각적이고 반사적인 감각적 작용을 하는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기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쁜 합리적인 이유나 사건의 기대 혹은 희망이 내재되어 있어야 하나, 즐거움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건의 충족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즐겁기 위해서는 그 순간 그러한 감정이 본인에게 느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현장에 있는 화자가 직접 느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현장성”과 “즉각성”, “상황에의 참여”라는 자질, 그리고 무엇보다 능동적인 기쁨의 지각주체로서의 화자의 적극적 역할은 러시아어의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과 한국어의 “즐겁다”가 공유하고 있는 자질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국어원 언어정보연구원의 말뭉치에서 검색한 다음의 예를 보라. 아래의 예는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구조상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 (12) 특히 면접시험을 본 후에는 완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합격 소식은 더더욱 기뻐다. 마음 한 쪽 구석에는 1지망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말이다.
- (13) 그러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모처럼 마음이 맞는 사람을 사귀게 되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사람이 하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14) 그 날이 와서, 오호 그 날이 와서

육조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덩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기어

커다란 북을 만들어 돌쳐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심훈. 그날이 오면)

(15) 그러나 그때의 우리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빨리 달아났던지!

칠면조를 기절시키던 그 시절은 참으로 즐거웠다.

지금도 나는 그 시절의 솜씨를 갖고 있는 것일까?

(16) 그는 연로한 부모님과 점심상에 둘러앉아 정담을 나누는 것도 재택근

무의 즐거움으로 꼽는다. 柳씨는 "사무실에선 마지못해 일하는 기분이지만 재택근무 때는 아무리 복잡한 일도 취미생활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17) 이길을 영만이는 아내와 둘이서 마늘밭 김을 매는데 힘든 줄도 모르

게 마음이 즐겁다. 낮이면 햇살이 제법 따가워서 땀도 많이 흐르고
올해 마늘값마저 불안정할 조짐이어서 일이 즐거울 까닭이 없는데도
휘파람을 불며 신바람이 난다.

위의 예문 (11)에서는 기대의 충족이 (12)에서는 사고작용의 적극적인 작동으로 인한 논리적 귀결이 (13)에서는 오랜 기다림의 충족이 기쁨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에 (14)에서는 그 시절에 대한 회상이, 그 순간 화자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이고 (15)와 (16)은 기쁨의 원인이 선행맥락에서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화자에 의해 단순히 좋은 느낌이 든다는 선언이 발화상황 현장에서 제시된다는 점에서 “즐겁다”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 즉 행위에 직접 참여자로 참여하면서 느끼는 좋은 느낌이 “즐겁다”의 사용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예문들에서 즐겁다

가 적절하지 않고, 기쁘다만이 적절한 이유, 혹은 즐겁다가 적절한 반면 기쁘다는 어색한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¹⁷⁾

(18) 영철이는 대학 등록금 인상율이 대폭 낮아졌다는 소식이 기뻐다/즐거웠다? 더이상 힘겨운 아르바이트에 시달리지 않고도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18a) 대학 등록금 인상율이 대폭 낮아졌다는 소식을 친구들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은 기뻐다?/즐거웠다. 다들 깜짝 놀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9) 내년부터 3.8% 오르게 되는 월급이 기뻐다/즐거웠다?

→ (19a) 오늘 두 시간동이나 읽은 책은 기뻐다?/즐거웠다.

→ (19b) 오늘 책을 읽으면서 보낸 시간은 기뻐다?/즐거웠다.

(20)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새로 시작되는 새 학기가 나는 기뻐다/즐거웠다?

→ (20 a) 지난 한 달동안의 방학은 기뻐다?/즐거웠다.

(21) 내 생일을 맞아 친구가 준 소중한 선물이 기뻐다/즐거웠다?

→ (21a) 내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논 것이 기뻐다?/즐거웠다

(22) 나는 어느새 다 커서 저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아들 녀석이 기뻐다/즐거웠다?

→ (22a) 다 컸다고 저렇게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는 아들 녀석을 보는 것이 기뻐다?/즐거웠다.

예컨대 (18)-(20)의 예문에서는 직접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미래에 펼쳐질 일에 대한 기대에 대한 것이고, (21)과 (22)은 화자의 기대에 부합되는 논리적으로 즐거운 상황인데다, 미래에 펼쳐질 사건이므로 화자가 직접

17) 이들 예문들은 필자가 언어정보 나눔터의 예문을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가공한 것임을 밝힌다.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즐겁다가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18a) (19a) (19b) (20a) (21a)는 해당 행위에 화자가 직접 참여하고, 그 상황에서 특정 대상이나 사건,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감정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기쁘다” 보다는 “즐겁다”가 보다 적절한 경우이다.

III.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러시아어와 한국어에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원적인 감정 중 하나인 “기쁨”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기쁨”이라는 개념이 러시아와 한국어에서 어떻게 기술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술이 어떠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두 언어 간의 비교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러시아어에서 기쁨은 주로 радость [기쁨]과 удовольствие [즐거움(만족)]으로 기술되며, 전자는 전통적으로 보다 넓은 종교적, 정신적, 지속적, 문화적 맥락과 관련된다면 후자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 육체적, 순간적 맥락과 관련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대립은 흐려지고 전자는 보다 지속적이고 깊이있는 맥락적 기쁨으로, 후자는 일상적인 맥락에서 작은 욕망들이 즉각적으로 투영되는 대상에 대한 흡족함으로 대치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어에서 기쁨은 주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두 개의 어휘로 구현되는데, 전자가 보다 정신적인 작용과 관련을 가지며, “기쁨”을 유발하는 원인과 그 결과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추론이 기저에 깔려있는 반면, 후자는 화자가 참여자로서 해당 상황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연관된다. “기쁨”이 화자가 사전에 가졌던 기대와 계획, 예상과의 부합 혹은 충족으로 인한 흡족함에서 오는 경향이 강하다면 “즐거움”은 해당 상황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화자가 상황의 전개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다. 따라서 러시아어의 기쁨을 구성하는 어휘 중 하나인 “즐거움(만족)(удовольствие)”과 한국어에서의 “즐거움”은 매우 중요한 의미적 자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두 언어 모두에서 화자가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기쁨에 대한 2개의 변별적인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김향숙,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 로버트 플러치, 『정서심리학』, 학지사, 2004.
- 안혁, 「러시아어의 슬픔 의미연구」, 『슬라브연구』 31권 3호, 2015.
- 이기웅, 「감정과 언어-러시아어에서 ‘분노’에 대한 표현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34, 2010.
- _____, 『러시아어의 감정표현』, 근간.
- 이훈구. 『감정 심리학』, 학지사, 2010.
- 임지룡. 『말하는 몸』, 한국문화사, 2007.
- 졸탄 피벡세스, 『은유와 감정: 언어, 문화, 몸의 통섭』, 동문선. 2009.
-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한국어가 있다』,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5.
-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2014.
- 폴 에크먼, 『얼굴의 심리학: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드러내는가?』, 이민안 역, 2010.
- 한만춘, 「한국어와 러시아어 관용구의 비교연구 - 감정표현 관용구를 중심으로 -」, 『노어노문학』 18권 11호. 2006.
- Ortony, Andrew, Gerald Clore, and Allan Collins, *The Cognitive Structure of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Wierzbicka, Anna, *Semantic Primitives*, Athenäum Verlag, 1972.
- _____, *Emotion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Diversit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_____, *Semantics, Culture, and Cogn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Апресян, В.Ю. “Опыт кластерного анализа: русские и английские эмоциональны

- е концепты”.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 2. 2011.
- Арупонова 1976 – Арупонова Н. Д. *Предложение и его смысл: (Логико-семант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М.: Наука, 1976.
- Вольф 1989 – Вольф Е.М. “Эмоциональные состояния и их представление в языке”, *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языка: Проблемы интенциональных и прагматических контекстов*. М.: Наука, 1989.
- Зализняк, Анна А. “Счастье и наслаждение в русской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е мира”, *Константы и переменные русской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ы мира*.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2012.
- Зализняк, Анна А., Шмелев А.Д. “Лексика радости”, *Константы и переменные русской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а мира*.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2012.
- Колесов, В.В. *Ментальность в языке и текст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2007.
- Красавский, Н. *Эмоциональные концепты в немецкой и русской лингвокультурах*. М., Гнозис, 2008.
- Пеньковский, А.Б. “Глагольные действия sub specie adverbiorum. 1. охотно,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с радостью”, *Слово и культура: Памяти Н. И. Толстого. Т. 1*. М.: Индрик, 1998.
- Пеньковский, А.Б. “Радость и удовольствие в представлени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языка: культурные концепты*, М., Наука, 1991
- Степанов, Ю.С. *Словарь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1997.

<사전류>

- 김민수(편),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1997.
- 서상규,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빈도사전*, 한국문화사, 2014.
- 서정범, *국어어원사전*, 보고사, 2003.
- 국립국어원 언어정보 나눔터 <https://ithub.korean.go.kr/user/login.do> (2015.11.4.일 검색)
- БАС – *Словарь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В 17 т. М.; Л: ПАН, 1950–1965.
- БТС - *Большой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Кузнецов, С. А. (ред). Норинт, 1998

МАС –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4 т. М.: Русский язык, 1981-1984.

НОСС – Новый объяснительный словарь синонимов.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2004.

Ожегов С. К.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Русский язык, 1985.

Фасмер, Макс. Этим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4 т. Прогресс, 1987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Joy in Russian and Korean

Kim, Jung-II

This paper explains how the basic and instinctive emotion “joy” is verbally expressed in Russian and Korean. In particular, the main concern of this paper is on the cultural context with which the emotion “joy” is related and the ways in which the emotion “joy” has a wide range of uses. The semantic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the uses of the expression “joy”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in both languages. In Russian, joy has two variants, *radost'* and *udovol'stvie*. It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 however, the former is mainly connected with more mental, spiritual, cultural, and religious contexts, whereas the latter is mainly related with more concrete, instantaneous contexts and daily life. The former produces an impression that has a more wide, spiritual, and macroscopic attitude toward a situation, whereas the latter produces an impression that has a microscopic and instantaneous attitude toward a situation.

Compared with the Russian expressions, the Korean equivalents, 기쁨 and 즐거움, have a very similar opposition like that of the Russian. The former is based on a more logical and causal relation between an anticipation or desire and the current situations, whereas the latter i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speakers in a situation and has a very instantaneous characteristic, like a *udovol'stvie* in Russian. Thus, it can be reasonably argued that the Russian *udovol'stvie* and the Korean 즐거움 share many similar semantic properties.

In brief summary, in both languages there exists two distinctive variants that show a privative opposition to express the emotional concept of joy.

Key Words

joy, cultural context, participation, attitude, emotion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08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9일